한겨레
2015 .06. 08
국제갤러리㈜

북한 자수장인 솜씨 궁금하다면

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에 나온 작가 함경아(49)씨의 자수그림들은 작가가 짠 작업이 아니다. 북한 자수장인들에게 작가가 구상한 현대회화 이미지를 주문해 받아온 작품들이다. 그림을 짠 북한 장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. 묘한 호기심을 낳는 전시다. 7월5일까지. (02)3210-9873.